

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1. 과제명: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 연계

2. 출장자: 최영신(연구위원, 교정보호연구실)

3. 출장지: 일본 동경, 삿포로

4. 출장기간: 2007년 8월 1일 - 2007년 8월 8일(7박 8일)

5. 출장목적:

- 일본의 갱생보호제도 및 출소자 사회복귀 처우 실태 파악
- 일본의 BBS회 활동 파악
-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관련 자료 수집

6. 출장 내용

○ 동경보호관찰소 방문

(1)소재지: 동경 법무성 4층 소재

(2)주요 면담내용: 일본의 갱생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

: 일본의 갱생보호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호관찰제도 전반의 핵심기능으로 분류되어 있음. 규정에 따르면, 갱생보호의 주요내용으로 ① 보호관찰, ② 가석방, ③ 환경 조성, ④갱생긴급보호, ⑤ 은사, ⑥ 범죄예방활동, ⑦ 의료관찰제도 등이 있음.

- 일본의 갱생보호는 관주도하에서 지역 단위의 민간단체들과 민·관 협력체계 속에서 시행되고 있음. 먼저, 행정기관으로서 법무성 산하에 보호국과 중앙갱생보호심사회가 주축을 이루고, 여기에 지방관계기관으로서 8개청의 지방갱생보호위원회 및 50

개의 보호관찰소(保護司選考會가 연결됨) 및 3개소의 지부 및 27개소의 주재관사무소가 있음. 지방갱생보호위원회는 주로 가석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,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, 갱생긴급보호, 범죄·비행의 예방활동을 함. 지방갱생보호위원회와 보호관찰소에는 약 1000여명의 보호관찰관이 배치되어 있음.

○ 여성출소자 대상 갱생보호시설 참관

(1) 시설명: 죠슈카이(靜修會) 아라카와료(荒川寮)

- 경영주체 : 갱생보호법인 죠슈카이(靜修會)
- 소재지 : ☎116-0002 東京都 荒天區 荒川4丁目 17番 1號
- 수용정원 : 20명 (청소년여자 5명, 성인 여자 15명)

(2) 처우의 특징

- 고령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, 자립준비기간 중 충분한 원조가 이루어지도록 함.
- 해당 지역의 보호사회(保護司會)나 갱생보호여성회의 협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, 반사회 모임 등에 집회실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융합을 도모함.
- 해당 지역의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보호사, 민생·아동위원, 학교 상담사(School Counselor) 등이 모이는 자유토론회를 주재하고, 사례연구 및 정보교환의 장을 제공함.
- 매월 시설 수용자 전원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인 정례 수용자모임(定例寮生集會)과, 정신보건복지의료 관계자 등의 협력을 얻어 개최하고 있는 ‘여성의 건강을 생각하는 모임’을 실시하고 있음. 이외에 희망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콜라주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음.

○ 북해도 지방 BBS 연맹 방문

(1) 소재지: 북해도 삿포로시 중앙구 제3합동청사 5층 북해도지방갱생보호위원회내

(2) 면담내용: BBS운동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중심으로

- BBS운동이란 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의 약자로, BBS회

란 형이나 누나와 같이 가까운 존재로 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그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범죄나 비행 없는 밝은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비행방지활동을 하는 청년자원봉사단체임.

- 일본의 BBS운동은 소화21(1946)년 전후(前後)의 혼란 중 부랑아나 고아가 된 소년들에 대해 “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?”하는 따뜻한 마음을 품은 교토(京都)의 한 청년이 시청에 투서를 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음.

- BBS회의 조직: BBS회는 전국조직으로서 일본BBS연맹, 지방갱생보호위원회 단위에 지방BBS연맹, 보호관찰소 단위에 도부현(道府縣) BBS연맹, 시정촌(市町村) 또는 소학교 등을 단위로 지구BBS회가 각각 조직되어 있음. 각 지역에서 실천활동을 하는 지구BBS회는 564단체에 이르고, 6,024인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. 북해도BBS연맹은 25개 지구BBS회로 구성되어 32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, 연회비는 3000¥ 이상임.

- 활동의 특색과 내용 : BBS운동은 우애와 자원봉사정신을 기초로 소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생각하고 배워나가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고, 그 실천활동은 친구활동, 비행방지활동, 자기연찬(自己研鑽)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.

7. 맺음말

○ 일본의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개관과 갱생보호시설 참관을 통하여, 일본의 출소자 대상 갱생보호 처우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보다 정부의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. 특히 각 보호관찰소내에 갱생보호진흥과가 설치되어 출소자의 사회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.

○ 또한 출소자 대상 갱생보호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소규모로 조화롭게 운영되는 점, 보호관찰소가 주축이 되어 감독기능을 하면서 민간조직과 협력관계를 유지해가는 점 등은 사회내 처우의 선진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판단됨.